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236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14,15-2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14,15-21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준과 지적 향상 능력에 따라 어떤 단계를 정해 놓고 학습을 진행해 나갑니다. 기초가 되는 원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응용 능력을 키워나가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 선생님들의 교육방법이겠지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하면 분명 역효과가 날 것이고, 교육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도 단계별 학습법 같이 느껴집니다.

첫 단계는 예언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지어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 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보며 만난 사람은 없었지만,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음성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여 빈번하게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그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물론 응당한 벌을 내려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그 벌은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육화의 신비, 하느님으로 천상에 계시면서 모든 권능과 영예와 영광을 받으셔도 모자란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년 성탄 때마다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얼마나 우리들이 그리우셨으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자연스레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느님을 만나 뵙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함께 식탁에 앉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저 하늘과 이 땅의 만남이 아니라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 숨 쉴 수 있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체험을 이끌어 주시면서 다시 한 곳에 모여 하느님을 증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후 하느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예언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나 예수님을 통한 일대일적인 만남이 아니라 직접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일치를 이룬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온 것이었다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없었을 텐데 차츰차츰 더 좋은 것을 선사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법' 덕분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려는 하느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며, 그분을 올바로 바라보고 알아 모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수원교구 5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요나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집필 시기

기원전 4세기경에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예언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씌었습니다.

선포 내용

요나서 저자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그들을 억압한 이방 민족인 니네베의 사람들이 하느님께 돌아와 선을 행할 때, 그들과도 형제처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요나서의 구성

1. 요나의 사명(1,1-3)
2. 요나, 도망을 가다(1,4-16)
3. 요나의 회개와 기도(2,1-11)
4. 요나의 설교와 니네베의 회개(3,1-10)
5. 하느님의 자비(4,1-11)

니네베는 기원전 721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무수한 이들의 피를 흘리며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의 도시가, 하느님의 분부에 따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과는 달리,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이런 편협한 갈등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는 이 세상을 위한 보편적인 구원을 향해 있음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공지사항

-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한 순명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성모님을 묵상하고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성모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봅시다.
- 5월 6일(금)에는 산호세 본당 공동체가 함께 성모의 밤 전례를 갖습니다. 많은 참례 바랍니다.
- 5월 14일은 황 마티아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산호세 성당 공동체를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신 우리 신부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20,19-23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 평화로우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시어 평화 선포와 함께 성령이 오심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 중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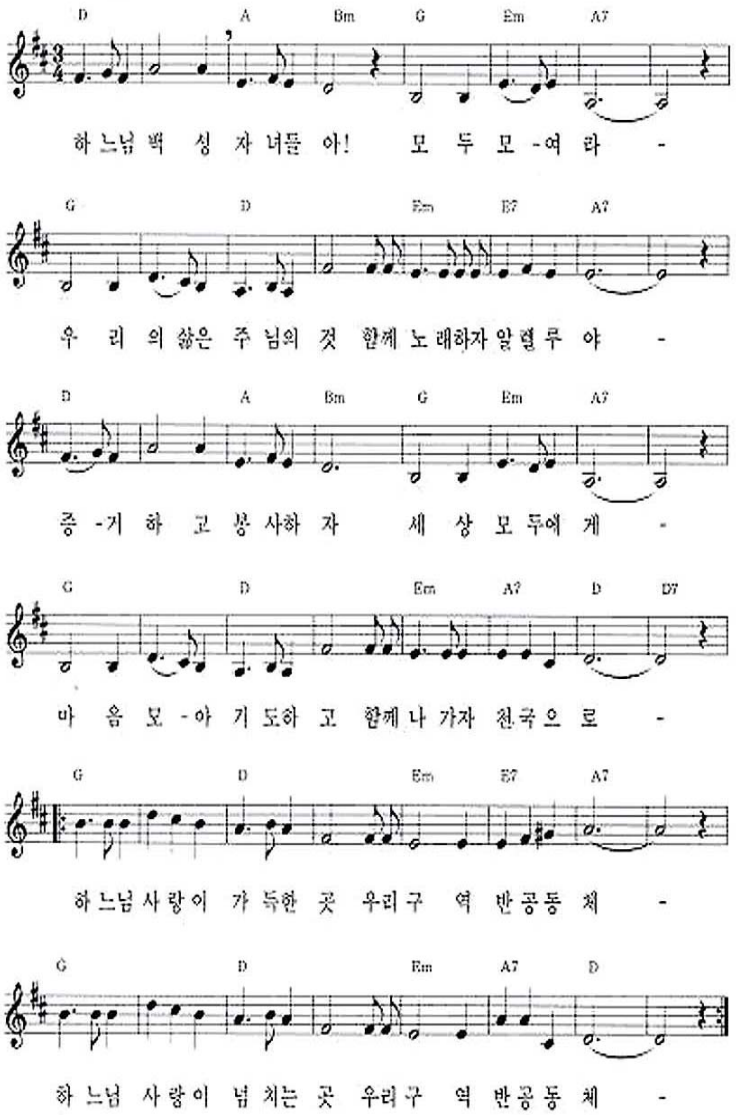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